

교황 방문 3차 워크숍: 교황 방문 이후 충남의 천주교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가. 개요

일 시	2014년 10월 2일(목), 오후 3:00~6:00	
장 소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	
참석자	좌 장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사 회	최영화(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발 표	이원재(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유병덕(충청남도 문화예술과 과장) 박근수(배재대학교 교수)
	토 론	김성태(합덕성당 신부) 김정겸(서산시 문화관광과 과장) 이용호(솔뫼성지 주임신부) 이원균(충청남도 관광산업과 관광기획팀장) 이종원(충청투데이 충남본부 국장) 박철희(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경태(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나. 내용

■ 최영화(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충남발전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최영화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행사는 충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천주교성지방문 의의와 성과를 지켜보고 향후 충남도와 사. 군 차원의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워크숍에 참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워크숍 개회식에 앞서서 오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식을 마치고 약 80분간 발표자 3분의 주제발표를 들으신 다음에 10분간 휴식을 갖고요. 본 워크숍의 좌장이신 충남발전연구원의 강현수 원장님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님, 유병덕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과장님, 박근수 배재대학교 교수님, 이용호 솔뫼성지 주임님, 김정겸 서산시 문화관광과 과장님, 이원균 충청남도 관광산업과 관광기획팀장님, 이종원 충청투데이

이 국장님, 충남발전연구원 강현수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모든 분들을 다 소개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처 소개 해 드리지 못한 분들은 차후에라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황방문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구요. 다음은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 강현수(좌장 · 충남발전연구원장)

-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황님 방문에 관련해서 두 번의 워크숍을 가졌어요. 첫 번째 워크숍을 원내에서 하는 교황방문 의의를 가지고 했고 두 번째는 당진 문화원에서 당진 소장님을 모시고 교황방문 준비들을 체크했고요 이번에는 교황님 다녀오시고 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약간의 흥분과 열광도 조금은 끝나고 이제 조금 차분히 준비할 것들을 아마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딱 제가 보니까 역전의 용사님들이 다 오셨네, 교황님 오셨을 때 현장에서 교황님 옆접하시던 이용호 신부님 오셨고 김성태 신부님도 오시고요 도청에서 유병덕 과장님 현장 중계도 해주시고 이원균 팀장님도 현장에서 뛰셨던 분들이고요 우리 서산은 뭐 당연히 서산에서 제일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고생하셨던 분들 취재하느라 고생하셨던 이종원 국장님도 오셨는데 어쨌든 교황님이 8월 달에 오시고 이제 2달 조금 안됐는데 제 생각에 흥분도 가라앉고 이때부터 차분히 준비해야 될 것 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차분하게 다시 한 번 교황님 방문의 의도를 되 보면서 교황님 방문이후 충청남도 그래서 서산시 당진시 그리고 전체인민들이 어떤 준비를 해서 천주교 유산과 역사문화 자원들을 도민들과 함께 활용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쨌든 오늘 정말 핵심 분들이 오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는 결론이 충청남도에 서산시와 당진시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군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신부님들 직접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구요 이제부터 좋은 오늘의 발표와 토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화(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오늘 제 1주제 발표를 해주실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이원재 소장님께서 교황 방문 이후 충남의 천주교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 이원재(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안녕하세요. 저는 이원재입니다 저는 주로 문화 정책관련 된 연구나 그런 제

안들 이런 걸 문화정책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 주제에 관련해서 충청남도 상황은 잘 몰라요 여기 지역사회에 대해서, 아마 발표가 3개로 구성되어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봤는데 뒤에 두 분이 워낙 구체적으로 이번 행사와 관련된 거라든지 충청남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이 주제와 관련된 최근 문화정책의 흐름 패러다임 안에서 이걸 어떻게 의미를 가져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이게 저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구성을 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십년사이에 한국사회에서 문화정책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왔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십년 전만해도 문화정책이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술가를 지원한다던가, 관광이나 체육이나 이렇게 제한된 범주 안에서의 정책을 생각했다면 한국사회의 문화정책이 대규모 개발을 하는 것에도 중요한 콘텐츠로 실제 문화적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문화와 관련된..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솔루션 정책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문화정책이 그 범위가 어디까지나 그런 토론이 많이 될 정도로 문화정책의 사회적인 확장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이 됐죠. 다 문화도시 이제 충청도도 많이 쓸 텐데 문화 도시라던지 문화콘텐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도시의 경쟁력이기도하고 정체성이기도하고 대안이기도 한 그런 상황으로 문화정책이 부상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에 최근에는 문화도시, 창의도시, 창조도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문화가 도시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유럽에 모델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 왔죠. 도시재생 같은 경우 대부분 유럽에서 산업패러다임이후에 많은 생태적인문제 도시의 창의성의 문제 성장 자본주의적으로 표현한다면 경제적으로 본다면 성장 동력을 새로 발굴해야 돼요.

-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지난 십년동안에 서울안의 굴뚝공장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도시가 발전하면서 싫은 거죠 그게 정당하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수도권 쪽으로 공장들이 이주 한 다음에 그런 폐 사업시설들을 다시 어떻게 같이 활용할거냐, 혹은 새로운 경제적인 문화적인 것을 가질 거냐, 사실 문화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여전히 실제로 행정적으로나 선입견으로 생각하는 문화예술 이런 전공예술을 훨씬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주제도 그런 부분에서 역사문화 저한테 주어진 제목이 교황방문이후의 충남 천주교 역사문화 자원 발굴 방안이었는데 그런 출발지점으로 저희들이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문화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앞서 워크숍 하신 내용들을 다 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교황이 이번에 오면서 한국사회에 던지 화두가 있다면 한국사회가 인지하고 이미 알고 있지만 한국사회가 제도적으로 주류적으로 잘 관심 갖지 않은 부분의 메시지가 많이 등장을 한 거죠. 교황이라는 세계적인 지위와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00를 통해서

그런 것들인데 예를 들면 첫 번째 사회적 윤리와 정의 같은 경우입니다 한국 사회에 그런 얘기를 하면 무슨 교과서 같은 얘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교황이 던진 메시지는 간단한 거죠. 약자에 대한 거고 사회적소수자를 배려해야 된다고 굉장히 만들고 가셨잖아요. 유명한 요즘에 정치인들이 매일매일 국회에서 쓰고 있는데 그게 사회적 윤리라는 단순한 거지만 한국사회의 세월호 문제를 비롯해서 한국사회의 도시개발의 행정이든 전문가들이던 정치인이던 시민이던 이런 사회적 윤리와 정의가 도시개발에 존재했는가,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서울 같은 도시는 지금 수도권 정책에 쓰이는 그동안 이것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큰 성찰이거든요 너무 많이 개발해서 아파트를 만들어놨으니까 어떻게 됐는가? 커뮤니티가 다 해체 돼 버렸죠. 서울에 지금 박원순 시장의 넘버원정책중 하나가 마을 만들기잖아요. 되게 아이러니 하잖아요. 서울에서 마을을 만든다는 게 왜 만들어야하는 건지 그동안 마을을 다 해체시켜놨죠 그런 사회의 정의와 윤리를 교과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실제 문화정책에도 똑같이 적용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교황이 던진 메시지는 저는 되게 심플하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과 관련된 마찬가지로 성찰과 소통입니다. 반성이죠. 어떤 우리의 권력자들 국가라든지 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성경에나오고 우리가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배우는 성찰과 소통, 가장 많이 등장한 게 낮은 자세로 교황의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게 성찰과 소통이라고 봅니다. 한국사회엔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행정이나 정책도 위에서 결정해서 아래로 내리는 방식, 항상 말로는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실제정책이나 그런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황이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엄청난 상징적인 권력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 지도자가 한국에 와서 보여주는 행모를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교황은 소박하고 담백하고 근데 실제로 한국사회의 국가를 운영하는 도심을 운영하는 질서와는 떨어져 있는 거죠

- 세 번째로는 그런 맥락에서 가장 많이 등장 하는 게 사회적 소수자의 배려입니다 왜 교황은 광화문에서 세월호 가족들을 와 있는 동안에 많이 만나셨잖아요. 한국사회의 굉장히 핫한 이슈지만은 그게 정치적인 쟁점으로 되어있지만 정치적인 쟁점을 떠나서 사회적 피해자들 그 뿐만이 아니죠. 노동자나 농민들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그것이라 보는데 종교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그거는 그 종교가 무엇인지를 떠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심지어 교회와 성당의 비판을 많이 하셨잖아요. 교회나 종교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메시지를 결국 이런 게 왜 굳이 한국사회를 인종도 다르고 얼굴색도 다르고 그다음에 저 멀리서 저는 지구적 공동체와 사회적 치유라는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 10년에 대한 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지역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서울도 지역으로 봐야 된다는 관점부

터시작해서 서울 안에서 어떤 기초자료들의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지역이라는 게 로컬리티라는 게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지역이 아니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원리들에 대한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자본주의나 고도성장을 하면서 개발을 하면서 해체시켰던 관계 이웃에 대한 관계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든 멋있게 하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사회적 경제가 뭐니까 재벌이나 고도개발 만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 있는 것들에서 협력과 협동조합도 그렇잖아요. 협동조합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것만이나이라 협력하고 협동하고 커뮤니케이션해서 살아야하는 것들에 대한 재발견 혹은 반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도개발도 성장했지만 우리는 행복한가?? 요즘에 가장 큰 이슈로 안전문제 같은걸 예를 들면 안전문제는 문화랑 무슨 관계가 있나 최근에 저한테 제일 많이 제안 받았던 게 안전문제에 대한 자문 그런 거였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제가 서울에서만 살아 봐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지금 40대중반이니까 20년 전만해도 아파트에서 사는데 그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 다 알고 있었다고요. 아파트에서 저도 실제로 옆에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어머니들도 김장을 다 같이 하고 이런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서울에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인사를 하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편해해요 뭐지 저사람 어떤 성범죄에 노출된 건 아닐까 그런 이웃의 관계들이 다 해체된 거예요 이것을 안전을 채워지기 위해서 CCTV라든지 엄청난 치안을 했지만 사실 과거에 관계 이웃이나 마을만 못한 아무리 발달해도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라는 게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삶의 관계에서 안전문제만 놓고 보면 별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보건 의료문제 다 넣을 수 있죠 도시와 지역과 관련된

- 이런 것들의 지역적 가치 이런 것들이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삶의 원리 같은 그런 걸로 많이 환경운동하거나 문화운동을 하거나 이런 사회적 의제를 제안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역과 마을을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아마 많이 이야기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에 문화정책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의제들이예요 이것도 사실 불과 십 년 전이예요 그전부터 수없이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왔지만 터무니없는 견해처럼 들렸던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가 됐어요. 인구구성의 변화 같은 거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나 수도권이나 전국적으로 이주노동이나 다문화 국가가 엄청나게 다문화 정책을 살렸죠. 다문화 정책하다가 문화다양성 정책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구구성의 변화입니다 고령화 같은 것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넘버원 향후 10년 사이 가장 큰 중요한 그게 도시고령화문제입니다 농어촌은 훨씬 더 심해졌죠. 농어촌 공동화 사회 같은 것들 인구구성의 변화 같은 것들 필요 사회라는 거 인구, 필요사회, 굉장히 요즘 책들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성과주의 경쟁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삶을 어떻게 만들었나, 부유해진 것 같은데 실제 행복

한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죠. 세계 최고의 노동시간 세계최고의 자살률 이런 것들 한국은 성장하고 항상 기적이라고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설명하는데 시민들은 가장 많은 자살율과 가장 많은 강도 높은 노동사회에 살고 있다는거죠. 흔히 우리가 항목에서 문화정책이나 문화가 빈번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뉴욕에 갔다 오고, 런던에 갔다 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여행자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매일매일 엄청난 축제예요 서울의 특징은 공공이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무료이고 퀄리티도 낮지 않습니다. 제주도 어느 도시나 비슷해도 여기도 외봤는데 백제문화제하고 있는데 여기도 매일매일 엄청난 축제들이 있을 텐데, 주민들이 왜 못 느끼냐? 그걸 즐길 시간이 없는 거죠. 왜? 일해야 되니까. 노동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러니 문화정책이라는 게 본질이 무엇이나 했을 때 행복해지는 거 삶의 질 높이는 거 더 많은 축제나 더 많은 문화를 공급해야하나 이것도 물어봐야 해요. 오히려 노동시간을 감축 시키는 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생태위기 말할 거 없죠. 앞으로 더 심해 질 겁니다. 여기는 긴장감이 한국은 낮은 편이고 동남아 문제나 원전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기술변화 사실 수공예나 이런 것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기술이 발달 되는 게 좋다고 했지만 전국적으로 적정 기술이라던 지 수공예나 핸드메이드 이런 것들이 되 돌아오고 있어요. 그게 왜 돌아오는 걸까 옛날을 생각해보면 옛날에 다 버린 거잖아요 만약에 집에서 젊은 남자애들이 뜨개질하고 있으면 부모님들 속 터져 죽었겠죠. 근데 요새 그 수공예 작업들 목공하고 이런 것들 공방이런 것들 옛날에 원래 했던 것들이죠. 우리아버지들이 집에서 했던 것들이고 자기들 삶의 기술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 대표적으로 요리, 요리잖아요 요즘 소셜다이닝이라 던지 집밥이라 던지 한국에서 유명한 사회적 기업들을 보면 다 그런 주제를 다룬 사회적 기업들이죠. 할머니들이 들으면 말 같지도 않은 얘기겠죠 무슨 집에서 밥 먹는거 가지고 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돈을 버냐? 근데 실제로 사회적 기업 중에 잘 나가는 기업에 ‘집밥’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게 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울려서 밥 먹는 문화도 없는 거예요. 4인 가족 4명에서 같이 밥 먹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런 우리의 삶의 기술들 문화들이 되돌아오는 거죠. 성찰 속에서 시민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민주주의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정치적 불신이나 냉소도 심화되고 있고요. 또는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사이버상이나 온라인상이 실제 삶의 공간에서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 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쟁점을 두고 싶고요. 여가사회 어떤 지금 보면 삶의 질 같은 것 30대 40대 부모님과 의 대화 제 세대와는 다르죠. 다음세대와도 다르고 예를 들면 삶의 가치에서 우리 부모세대는 경제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삶의 미션이었다면 제 세대만 하더라도 여가라던지 자기 취미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를 들

어 자기수입, 예전 부모들은 자기월급에서 적금을 붓고 집을 사는데 목적 이었다면 지금은 그거 못하더라도 여행가고 돈 벌어서 이런 삶의 패턴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우리의 삶을 둘러싼 문화를 둘러싼 거고 그런 정책들이 사실은 중앙정부는 문화융성을 다른 정책으로 사실 내용을 보면 비슷해요 이 패러다임이 시작된 건 이 정책패러다임은 좌우가 없고 차0국 노무현 정부 때 만들은 한국에서 아마 가장 문화정책을 많이 정리한 것인데 그때 저도 참여했었는데 그때 만들었던 의견들이 정권은 바뀌어도 대부분 내용은 그대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진행하시는 문화다양성 사업이라던지 문화 복지라던지 이런 것 광역단체들 국제단체들까지 진행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다시 정책적으로 문화정책 뿐만 아니라 사실은 융합돼 있습니다. 거버넌스 소통이라 말하는 것들의 행정적인 그리고 참여민주주의 같은 것들 사회문제해결에 공공정책들이 떠오르고 있죠. 그다음에 도시재생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일자리 같은 것들 사회적 경제 일자리라는 게 문화정책과 무슨 상관이나 하지만 굉장히 유관하죠. 사회적 경제를 하고 있는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사회적 기업 지원받거나 창업하는 60~70%정도가 문화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도시재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마을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공동체라는 것이 행정이 어떤 라인으로 내려오던지 간에 실제 기초생활권으로 갈수록 문화적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집니다. 왜냐면 제가 문화부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국가가하는 행정적 기본 치안이나 뭐 이런 기본적인 걸 빼고는 삶의 거점으로 내려갈수록 생활단위로 내려갈수록 문화적인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중앙정부로 갈수록 부처별 차이가 크지만 기초로 올수록 생활권 정책이 문화정책이 중요하죠.

- 여기서는 편집을 하다 빠진 것 같은데 생활문화도 최근에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장르가 생활예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생활예술을 근대적인 개념으로 보면 충돌적인 개념이죠. 그동안 한국의 정책만 놓고 보면 예술은 생활적이지 않은 거였죠. 예술은 다른 거니까 근데 지금 왜 생활예술이라 강조 하나. 예를 들면 그만큼 삶의 창의성이나 어떤 삶의 질과 삶의 방식이 중요해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여도시라고 부르죠. 문화도시라고 부르죠. 창조도시라고 부르죠. 이런 도시개념으로 많이 진행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런 것들이 어떤 관련이 있냐? 저는 앞서 말하는 그런 패러다임이나 흐름들이나 구조적인 문제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히 이런 역사문화자원 이야기 될 때 대부분의 사실 지금까지는 보여주는 개발중심의 접근을 많이 했어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 혹은 사회적 이익을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지속가능하고 이것이 원래 본질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아주 쉬운 건데요 뭐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그런 토론회 같은 데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문화가 저도 문화정책을 15년 했는데 15년 동안 관광 사업을 발전시켰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은 과연 발전 했

나?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무얼 보지 베트남을 간다. 베트남을 가면 결국 무얼 봅니까? 대부분이 역사문화나 생태문화 자원들이예요 하롱베이를 가든지 프랑스 유적을 보든지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관광을 개발하겠다. 하면서 그런 자원을 계속 없앴어요. 그러니까 서울을 놓고 보면 보존해야 될 것을 다 부수고 개발했거든요 지금 와서 한양조성이나 그런 문제들이 생긴거죠. 보면 부순 것들이 다 우리의 자원들이었고 유산들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다시 복구하는 작업들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계천 보세요. 청계천 때문에 전국에 수많은 개천이 복구 됐잖아요. 저 도사실 지금 청계천 위원인데 그 청계천을 앞으로 10년 백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런 관점이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 천주교 역사문화자원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제가 주저리주저리 이야기 했던 것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비전이라는 것도 우리가 왜하는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하는 건데, 이 제목처럼 교황이 방문했고 천주교 역사 문화자원의 활용 방안을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에 최악의 시나리오에는 어떤 거냐면 전국적으로 자문할 때 본거고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에는 교황이 온 걸로 기념으로 관광 뭔가 하드웨어중심에 자원을 만들지 거기에 돈을 넣자는 100%실패할겁니다 그게 왜 실패하는지는 조금 있다 얘기 할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에는 뭐냐 이런 것들이죠. 정확히 비전이 왜 우리가 활용해야 되냐 활용 안할 수도 있자나요 활용해야 되는 이유는 교황을 계기로 한국천주교라는 저는 천주교 전문가가 아니고 신부님들이 더 계시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한국천주교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역사적 정신이 있다고 저는 배워왔거든요 보고 그게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으로 저항이라고 표현하던 또 민중이나 시민이나 이 삶의 토착민들과 함께했던 종교적 양심과 태도의 문제를 저는 spirit이라고 표현 했습니다. 그런 정신이 어떻게 공감되고 계승 될 것인가 이런 것 들이 없다면 굳이 천주교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로 미션이죠, 그러면 한국이 지역 충남이라는 지역의 현재성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 될 건가 이거그냥 옛날 예를 들면 역사문화자원에서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것이 뭐냐면 한국에서 현재성과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과거의 것 올드 한 것을 재현하려고해요 아주 정확하게 재현 되죠 정확하게 재현되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성과 소통이 돼야 현대적 기술이나 현대적 여기서 현대하는건 현실성입니다 뭐 하이테크놀로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예술가 들고 참여하고 기획자들도 참여하고 삶의 기반이라던지 이게 활성화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옛날 거 그대로 복원하고 그러면 죽는 거죠. 예를 들면 당연히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시각에서는 낡아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고 많은 돈을 부었지만 마네킹들 있고 이런 것들이 역사문화정책 복원하는거예요. 실패합니다. 아무리 동원해도 실패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외형적인 것도 비전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현재성 충남의 지역에서 현재성 여기서 살고 있는

지역민들 여기서 살고 있는 종교인들 이 사람들이 먼저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미션을 이렇게 잡지요 지금 행정에서는 천만 명의 관객이 오게 하겠다. 서울시도 지금 똑같습니다. 서울시 경복궁에 가보면 제가 매일 서울시 자문회의에 가면 비판하는 건데 잘하는 것도 많지만 예를 들면 광화문 경복궁가보면 중국인 관광객들 버스가 가득 차있어요 중국인관광객버스가 큰 돈 드려서 만든 자전거도로를 차지하고 쪽 서있어요. 예를 들면 과연 서울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는가, 서울시민들이 서울만아니라 한국의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봤을 때 불편하거든요 불편한 게 싫은 게 아니라 관광이라는게 빛을 본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문화 다른 교류 가치를 보고 싶은 거지 서로 난 개발되듯이 그런 사람들이 역사문화자원에 양쪽으로 수천만 명이 온다해서 좋은 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순교의 길이라던지 철학자의 길이라던지 이런 우리가 좋게 평가하는 해외의 것들을 보면 그런 구조로 개발되어 있잖아요. 우리처럼 주차장을 먼저 만들고 길 뚫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추진 방향이죠. 이런 걸 조달하기위해 원리사업 예를 들어 사업들도 여러 가지 가지가 있을 텐데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업을 원리사업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업적 논리구조가 필요한 거죠 아이디어성으로 나쁜 건 이런 거죠 맥락도 없고 원리도 없이 아이디어 사업이 막 주어진다. 도지사가 온다고 해서 이게 좋다 그러면 그걸 하게 되고 어떤 자문위원이 와서 영향력 있으면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정책 난개발이죠. 그런 것들이 두서없이 들어서고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지나도 다음세대까지 갈 수 있는 원리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삶을 둘러싼 새로운 비전이라던지 저보다는 아마 뒤에 충남 상황을 알 수 있는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해주실 거라 저는 제가 생각하는 추상적이지만 발언들을 언급해봤어요 삶을 둘러싼 성찰 치유의 과정으로서의 천주교 역사 문화 콘텐츠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비전 그리고 이런 것 들이 문화 사업이 아니라 문화적 기획이던가 문화사업과 문화적 기획은 다르죠. 문화 사업은 문화자가 들어가는 사업을 나열 하는 거고 문화적 기획이라는 것은 문화적 가치와 의미 속에서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후 천주교의 종교나 역사나 공동체 문화를 둘러싼 문화적 기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이런 것들이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냥 도나 시나 이런데서 계획을 세워서 떼우고 그걸 개발하는 방식이아니라 이걸 만드는 과정자체가 이런 원리를 지켜내야 되는 거죠. 어떤 지금까지 얘기한 원칙과 원리를 그래서 천주교 문화적 생태계에기반한 혁신 거버넌스와 파트너십이 구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낭만적인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현실적이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한국이 지금 문화정책이 처한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정책적 주제와 00이 되게 발달되어있어요. 왜 발달되어 있냐면 수입

을 되게 많이 해왔어요. 근데 그걸 예술정책이라 하면 아직 한국은 유럽과 다르고 첫 번째로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 맞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참조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가져가고 두 번째로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만든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만약에 도시재생, 도시재생 많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한국에서 원래 원리는 거의 사라졌어요. 도시재생의 원리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게 영국의 런던을 가던 프랑스를 가던 어딜 가던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태예요 생태는 왜냐하면 과거의 사업들이 이 지구를 아프게 하고 오염시키고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탄광촌이나 이런데 도시재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발전소나 이런 것들 우리가 트위터로 화력발전소 굉장히 얘기 많이하죠. 그건 문화로 시작된 게 아니라 템즈강이 굉장히 심각하게 버려졌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살리지 고민하다보니 템즈강 주변으로 오폐수가 안 나오는 소위 말하는 오염시설이 아닌 걸 넣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문화시설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술관이 생기고 대규모 템즈강을 따라서 프로젝트들이 생긴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런 맥락 없이 유희 폐해산업시설이 나오면 그걸 개발해요 다시 거대한 돈을 들여서, 두 번째로 생태적인 것 뿐만 아니라 예술과 교육이 붙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술은 왜 들어가냐면 가장 창의적인 폐산업시설같은 걸 재개발해야하는데 그것이 너무 많은 비용이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적은비용으로 가장 큰 크리에이티브로 예술가들을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 폐시설물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일반산업군에선 원하지 않죠. 근데 도축장이란지 탄광촌에서 작업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은 예술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자원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그 과정들을 설계하는 데에서 교육이 들어갑니다.

- 근데 한국의 도시재생은 그런 맥락이 없이 다시개발을 하는 걸로 이루어져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폐 사업 시설 바꾸는데 정화는 왜 들어가요 마찬가지로요 역사문화자원 왜 이게 들어가냐, 점점 도시가 발달하고 행정이 발달할수록 예산이 없죠. 서울시가 불과 10년전 까지만 해도요 이명박 시장 있을 때만 해도 가장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중앙정부도 있고 근데 지금은 복지정책이 늘어날수록 지금 서울의 지자체들도 대부분 돈이 없습니다. 왜 돈이 없냐면은 무상급식 시작했고 확대하려고하고 더 의지가 있는 지자체 장들일수록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런 것들을 계속 확대할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도시나 공공이 돈이 많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요즘 말하는 도시운영자체가 원래 시민들 것이었고 그들이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만 되지 않아요. 역사문화 콘텐츠를 만들 때 만들 순 있죠. 처음 만들 순 있죠. 큰 의지를 가지고 천역을 넣었다 근데 계속 천역을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지 않으면 처음시작 할 때

부터 그 지속적으로 실력이 있는 잘 이 취지에 맞게 천주교 역사문화자원을 운영하는 주체를 만들거나 파트너십을 만들지 않으면 실패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멋있게 처음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실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지역에 있는 이 주제와 관련된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천주교 역사문화자원이 창의성과 주체성과 자립성 과 정체성 같은 걸 만들어 낼 수 있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천주교 창의성이라는 건 천주교 문제와 지역문화를 둘러싼 뒤에 두 분 발제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역 커뮤니티 문화적 기획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체성에서는 이 주체를 만들 어떤 지역문화예술 교육이라던지 주체가 중요하다 자꾸 하드웨어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생략이 되는데 결국 나중에 덩그러니 남고 계속 돈을 먹는 그런 과정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런 지역주체를 형성 할 수 있는 주체적인 주체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 다음은 자립성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고민해야 되고 도시재생이나 사회적 경제의 생태적 연계 지속가능성에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성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냥 만드는 것 자체의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천주교와 지역문화를 둘러싼 역사문화콘텐츠의 정체성에대한 교육이 계속 이루어 져야한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것도마찬가지로 하드웨어의 계속적인 연구와 개발들이 필요한 거죠 접근과 아카이브 이런 작업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주교 역사문화 활용방안을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지역문화커뮤니티 이게 지금 앞에 말씀드린 트랙과 다 연결 되는 거거든요 창의성과 관련된 지역문화 어떤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예시를 들어 봤는데요. 평화공존을 형상화하는 종교 예술인들의 아시아 에이전시 같은 거 그래서 지역문화를 만들어 낸다는 것 여기서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천주교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야한다 이걸 예일 뿐입니다 이걸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사업들이 꼭 있어야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문화교육이나 지역교육과 관련된 지식순환 생태계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충남 천주교성지의 청소년 경험학교 같은 것들 요즘에 COP라고 해서 일방적인 주축 공급보다 경험과 체험과 실천을 통해서 배우는 교육 일원 중에 앞서있는 일원 일 텐데 이런 것처럼 이곳에서 아까 말한 한국 천주교의 정신 같은 것들의 교황이 왔을 때 전한 메시지들을 계속적으로 교육되는데 그렇게 되면 강요하는 지식들이 아니라 여기 와서 체험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그 다음 도시재생이나 사회적 경제에서는 사실 역사문화 협동조합 같은 것들 관광은 이따 더 박근수 교수님이 말씀 해주실 걸로 생각하는데 관광협동조합이라던지 이런 관계를 사회적 경제와 연계되며 자립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하드웨어보다 중요한 게 이거라고 보는데요. 사후 천주교의 성지 역사문화자원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역사문화 크리에티브의 창의적인 내용들을 더 만들고 기획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만들고 그런 맵 같은 것들이 같이 가야 한번 만들고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최영화(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여러 가지 토론할 지점들을 많이 던져주신 거 같은데요. 이제 추후 종합토론 시간에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유병덕 과장님께서 교황의 충남 천주교성지 방문성과와 향후과제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덕(충청남도 문화예술과 과장)

-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유병덕이라고 합니다. 지난 8월 4박 5일 동안 방한이라는 상당히 짧았습니다만 여운은 굉장히 깊은 것 같고 우리한테 다가오는 우렁찬 느낌은 아직도 가슴이 울렁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실무를 보면서 강현수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연초에 바티칸에서 실무단이 왔을 때부터 이용호신부님과 만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천주교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준비를 하려고보니 저희가 신부님한테 여쭙보기도 하고 조금씩 이해를 하면서 천주교의 가치를 이해하고 생각하다 보니 저희가 230년 정도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백 년 동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아왔고 그때 당시 성리학에 내몰려있던 그 가치하고는 상반된 가치를 갖고 수직사회에서 수평사회로 가고자했던 부분 그때 보면 상당히 신분이 엄격하게 되어있음에도 천주교를 전리하신 분들은 평등의 가치를 상당히 높이평가하면서 함RP 더불어 살아가자라고 하는 가치가 그 성리학 중심 수직관계의 신분제도에서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탱하기가 어려우니까 백 몇 년 가까이 탄압을 하면서 정부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정부권력에 의해서 창출되거나 죽어간 사람들 정부권력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과연 살인죄를 범하지 않을 것인가 않은 것부터 그때에 지표였던 가치가 지금 교황이 다녀가시면서 지금에 124인이 시복식을 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아시아 청년회에 오시고 솔피성지에 오시면서 그 슬픈 역사가 순한 역사로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천주사적인 부분에서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천주교 교황방안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조00말씀을 들어보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과거를 축하하기위해서 오셨다는 전제하에 슬픈 역사를 송고한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로 바꿔주셨다 그런 얘기를 강론하고 위안부를 초청해서 미사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초청해서 미사에서 이런 부분을 현재 어려움을

같이하자고 말씀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또 아시아 청년들에게 희망 메시지를 주면서 지금 보면 자본주의의 최후의00은 아주 어려운 여건들을 젊은이에게 절대 흔들리지 않고 초연하게 가난한자에게서 소외된 자들에게서 그대들을 지키고 잘 보듬어 가면서 하라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부분들은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프란치스코 방한이 큰 영광이었습니다. 만은 그 외에 비신자들도 상당히 행복해 했다는 부분이 모든 부분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신들도 방한 기간 내에 교황은 록스타와 같은 환대를 받았다. 소형차를 타고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고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나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원재소장이 말씀하신 거같이 소탈한 모습을 갖다가 외신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언론과 같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사회가 얼마나 부실하면 이렇까 계기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우리사회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단상이랄 만큼 큰 반향을 일으킨 이유는 그분이 단순히 가톨릭 수장이기 때문인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신념을 전하고 겸손과 배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한다고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신자이던 비신자이던 의미를 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외의 방한의 의의는 조금 전에 이원재 소장님이 자세하게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중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사실 천주교의 충남뿐만 아니라 전체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고려대 조왕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희가 제 7회 충남000 국민대학교에서 초기천주교 충청도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천주교에서 어떠한 특색이 있는지에 갖다가 상당히 심도 있게 한 두시간정도 00을 해주셨는데 이 속에서 보면 우리지역의 천주교와 충주 쪽의 천주교의 클래스가 조금 틀린 걸 발견 했습니다 충주 쪽으로 가신 분들은 양반계층들이 이런 쪽으로 갔고 우리 양인들은 도지로 오셔서 이존창 선생이라든지 역사적인 인물들이 계시지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천주교 00들은 10쪽이라든지 11,12 사회적 특성 이 부분에 정리된 조광교수님이 들려주신 것을 가지고 수정했습니다 14쪽 상단까지 이 부분을 왜 정리를 했냐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천주교 성지를 역사문화자원을 어떻게 발전보전개발 저희는 하드웨어적인 역할을 안 하려고 합니다 다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역사문화컨텐츠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산티아고길이 말이죠. 어떤 특징인이 그 고난의 길이라 던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을의 치유를 얻고 희망을 얻고 평화를 생각하고 이런 깨달음의 길도 갔다는 것을 보면 산티아고를 보면 하드웨어적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워킹하고 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드부분을 가급적 최소화 시키면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와서 쉬고 희망을 얻어가는 방향을 고민하고 이런 내용을 조광교수님과 얘기를 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조금 전에 이원재 소장님께서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 그다음 14쪽을 보게 되면은 충남도의 천주교 선지 현황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한국 천주교주교에서 발행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 선지순례에서 만들 전국의 성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만은 표에 보시면 15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속에서도 보면은 천주교 대전교구아래 성지가 가장 많은 것을 이해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긴 18개의 성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용식 주임님께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현재 하부에 22개소까지 만들어 졌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대전교구와 협의를 하면서 성지가 정해지는 데로 저희가 공익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충청남도에서는 교황이 오시기 때문에 내포 천주교 성지를 찾아서라는 책자를 문화관광산업에서 만들어 냈습니다. 그 만들어 낸 내용을 중심으로 그다음부터는 충청남도 천주교 성지 현황, 가에는 역사의 아픔을 보듬은 내포의 천주교 성지라고해서 이존창 선생의 생가지인 여사울성지부터 솔피성지 아시아 청년들의 장소인 합덕성당 공세리성당, 신리성지 순교성지까지 내포의 성지로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내포지역 외인 진산성리 다만 여기가 최초의 순교자가 나온 걸로 책에는 시사하고 있고 조광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 다락골성지는 000 그 내용은 정리했으니까 말씀은 안 드리는데 우리나라 천주교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고생하셨던 신부님들이 참수당하셨고 국내 협조 해주셨던 분들이 참수당하면서 정말 지금은 누구의 묘인지도 모르겠는 슬픈 다락골이 있고 성0성지는 산 중턱에 자리고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그 동네에서 주민들이 신앙공동체를 만든 것으로 얘기되는 것입니다. 갈피못 성지는 바닷가에 있는데 외국신부님이시죠. 이분이 참수는 황새바위에서인가요 그쪽에서 참수를 당하셨는데 성주쪽에다가 모셨던 거 같은데 이것도 이 내용에 관계해서는 조광교수님이 정리한데로 황새바위 순교지도 있고.
- 제가 조금 중점을 뒀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충남도 입장에서 교황이 충남도에 방문해서 우리가 어떠한 성과가있었는가 이 부분에 긍정적으로 접근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학적인 관점이라던지 문화적인 관점은 떠난 부분입니다 저희가 성공적인 프란치스코 교황방문 국민행사를 치루면서 중앙으로부터 바티칸에서오신 분한테도 전해들은 말씀입니다만 상당히 품격있게 지방정부에서 지원해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내의 원로들로부터 그러한 부분을 받고 인터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에서는 청와대에서는 사실은 경호 부분에만 관점을 뒀던것이고 00는 외교를 중심으로 문광부에서는 문화예산 쪽으로 시연이 됐는데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이번에 오시는 분 보다 6만 5천 명 보다 오신다고 통계가 됐습니다 많은 관객들의 편리라던지 숙박, 교통책 또 교황님께서 오시는 곳의 헬기장이라던지 행사장 이런 부분의 기반이 있어야되는지 교황이 오시는 자체를 정성을 들이고 환영분

위기를 만드는데 이속에서는 안희정 지사께서도 우리도 미처 책을 못 읽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문장이 자비로이 부르시니 이런 표현을 좋아하신다는 말씀과 00는 마리아 이 부분이 교황청에 말씀하시면서 솔피성지의 아시아 청년 그곳에다가 124쪽 상단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서 바티칸에 오신분들하고 교황청에서 아주 흡족해 하셨다고 말씀을 전해들었습니다. 어떻게 00을금한 마리아 그것까지 알고 저희는 몰랐는데 지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있어서는 지사님 까지도 천주교에 공부를 많이 아신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문구를 좋아하시는지 저도 그 부분까진 못 읽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바티칸으로 부터도 훌륭히 준비를 했다는 평가를 했다는 평가를 대전교구로부터 듣고 중앙정부로부터도 들었고 의원님들도 지사님도 중앙도 감계무량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24쪽에 천주교성지에대해 새로운 형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에 논쟁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지역경제에 기여했다는 부분을 어떤 분들은 당연하게 어떻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신 것을 가져다 경제적으로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위 클래스에서 가치를 부여하고 싶은 것인데 이것을 듣던 도에 홍보 00실에서 1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황방문준비를 잘했는가, 지역경제에 기여했는가, 이런 식으로 논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서산시에서도 그렇고 당진시에서도 오셨습시다만은 이런 통계가 일단은 00이죠 서산당진지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75%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논하고 서산시같은 경우 92.8%정도 우리도민은 60%정도가 우리 충청남도지역경제에 기여 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쓰면 어쨌든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부분을 가지고 저는 길게 논의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그러한 부분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세 번째는 천주교의 역사를 재조명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과거에 230년 전에 살았다는 슬픔의 역사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계기로 송고한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네 번째에 충남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뭐 자타가 공인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바티칸 티비를 통해서 cnn뉴스를 통해서 그동안 거의 소개가 안됐던 충청남도가 서산당진 솔피 해미가 검색을 찾아보면 가장 검색어가 높았던 것이 8월중에 첫번째 솔피성지 두 번째 해미성지 그다음 해미읍성 지역검색어가 나왔다는걸 얘기하는걸 보고 어쨌든 바티칸 티비건 뉴스가 됐던 그러한 검색어를 통해서 알려졌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양쪽 지역에 있는 서산에 해미읍성사무소라던지 당진 문화관광과 내부자료가 25p 하단에 보게 되면은 해미읍성은 평일에 약 500여 명이었는데 그 후에 700여명 정도 약 20%정도가 늘어났고 주말에는 보통 2000명 정도 왔는데 3000명 정도 한 150% 그러니까 1.5%늘었다고 통계가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솔

피성지 같은 경우는 150명 정도에서 500명 정도로 한 3배 정도 늘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어쨌거나 충남을 세계에 널리 알린 기회였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충청남도 자체로는 사실은 그간에 우리가 행정 전부 관주로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주민자치가 구성이되어서 마을 청소를 하고 꽃길을 조성하고 안내를 하면서 주민가치 학습의 기회가 되었다 이 부분도 하나의 성과로 다섯 가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녀가신 이후에 지방 자치 단체에선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적 차원에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앞에 설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사업은 절대 지자체라던지 천주교 대전교구라던지 천주교 측 이런 단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부적으로 해야 한다는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주도해서 제안을 하느냐 이것은 분명히 충청남도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주관으로 회의 할 때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충북0지사님이 충북에도 성지가 있습니다. 이걸 함께 논해야죠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계별로 접근을 할 것입니다 우선 제일먼저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우선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녀가신 연0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황방문백서를 만들려 합니다. 지난 2월 교황청 실사단의 방한에서부터 다녀가시기까지 우리가 천주교에선 무엇을 했고 종교에선 무엇을 했고 민간에선 무엇을 했고 분석을 하면서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잘한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이고 이것을 왜하냐면 앞으로 이런 분야에 지원한다던지 정책적 접근을 할 때에 하나의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열기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프란치스코 기념 사진 공모전이나 이런 부분을 예충이라던지 미술협회를 통해가지고 그동안 활동하셨던 모든 사진들을 모아서 전국적인 사진전을 한번 해볼까. 이런 부분이 뭐냐면은 교황이 방문하시면서 표면적으로 어떻게 도로라던지 주차장 주변이나 이렇게 머물지 않고 이분이 남기신 메시지를 갖다가 저희가 깨닫고 그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기로 지속적인 발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세계적인 명소와 인내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천주교 성지를 중심으로 성당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서 주차시설을 해주고 주변정비를 해주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을하고 생활공동체화 될 수 있고도 절대 성지와 성당이 주민들과 00되지 아니하고 함께 지역의 생활 공동체로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저희가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면 마을과 성지와 마을과 성당이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는 모델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의 주체는 주민자치들과 신부님들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제가 당진합덕에 갔더니 의원장이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 박근수 교수 발표문은 자료집으로 대체 -

■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 원장)

- 세 분 발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원재소장님 서울에서오시면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의견을 내주셨고 저희들이 굉장히 반성도 좀 하고 새로운 비전이라던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병덕 과장님 현장에서 보시면서 성과와 과제를 거의 연구자처럼 과제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희 연구원으로 오셔서 같이 연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박근수교수님 외국사례들 많이 발표해주셨고 충남 천주교유산 발전과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좋은 제안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토론시간인데요. 종합토론에 다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희 연구원 식구들도 있고 성당신부님들도 계시고 현장에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언론인도 계신데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자료집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신부님 안 쉬고 바로해도 괜찮겠습니까?

■ 김성태(합덕성당 주임신부)

- 네.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다양한 관점과 지식으로 일련의 사건들을 통찰력 있게 봐주셔서 올 때마다 배운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부로서 천주교와 연관되어서 오늘도 주제가 그렇긴 하기다만 많이 고민하고 하는 부분들이 잦다 올 때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발제해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제문을 받고 내용들을 보고, 발표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천주교라 하는 하나의 화두가 있잖아요. 근데 교황님 가신데 큰 화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단순히 일부분의 특정한 종교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방문이나 이번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천주교가 아니라 역사문화의 일부분으로서 분명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천주교 당국의 입장에서든 그러한 부분을 절대로 도외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가톨릭이 본연의 임무나 그러한 것들을 가야만 그것이 하나의 또 다른 역사가 되고 특수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어서 그런 점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우리 유산을 물려준 선배 선조들의 정신이나 역사를 다시 해석해서 태어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교구별로 되어있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이 대전 교구 아니겠습니까? 대전이 충남을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어떤 곳보다 천주교 문화 유적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사실은 한국천주교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부분입니다. 최초의 의미 최대의 의

미 최고의 그러한 의미들을 충남에 있는 모든 성지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남이라고 하는 곳은 어쩔 수 없이 한국천주교를 대표 할 수 있는 본성을 타고났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러한 논의들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단지 충남 뿐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더 책임이 막중해 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서 그런 천주교인데요. 몇 가지 재미있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러합니다. 외국에서 제가 한 1년 동안에도 짧은 1년 동안 교황님 오게 되겠다는 사실과 함께 로마에서 프랑스에서 동남아 국가에서 오는 손님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가 훨씬 더 뒤쳐져 있어서 외소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있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느끼고 말하는 것을 들어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럽의 천주교하고 한국의 천주교하고 아무리 같은 전래의 같은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저희가 가셔도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전래하나 신자들의 행동하나 하나가 자기들이 봐왔던 것과 전혀 다른 큰 틀은 같아서 이해는 가지만 전혀 다른 부분을 발견하면서 독특하게 그런 체험을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게 됐구요 또 하나는 그러한 체험들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독특한 눈에 보이는 역사를 시작으로 해서 독특한 역사 기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왜냐하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구체적으로는 스스로 신자들이 알아서 신앙의 유산을 형성해 나간다는 것들 그러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외국인들 뿐 아니라 한국 사람들 방문객이나 순례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있어서 다시 거기서 느끼고 알고 또 그러한 감동을 받아가는 부분들도 많이 봐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전대 그러한 부분들을 단순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특별한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거로는 합덕성당을 예로 들 수밖에 없는데 백년 된 성당에 건물도 백년이 됐지만 거기 다니는 분들도 거기에 백년이 넘게 다니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70년 밖 안 다녔지만 아버지가 다녔고 할아버지가 다녔고 그 역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외국인은 물론이고 한국 사람들이 와서 미사를 본다는 것 자체가 특이한 체험이라는 거죠. 새로 생겨진 성당이나 백 년 동안 해왔던 것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물이 문화재가 아니라 충남의 지역은 적어도 구성원들이 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문화재역할을 이미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뜻 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텐데 인위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해오던 것을 계획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크게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다만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편의만 제공을 해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오랜

천주교의 역사를 이 지역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천주교 성지나 유산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데, 그럴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여기서 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좋은 거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켜야지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무얼 알려주고 하는데 왜냐면 어려서부터 봐오던 거니까 실제로 아니까 그분들이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건대 그분들에게 조금만 더 가지고 있는 유산들을 정리해서 쉽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인지를 시키면 그분들이 아주 훌륭한 해설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나 언제나 어떤 상황에 있어서라도 지금도 그런 역할을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부님들도 같이 와있지만 지구로 저희는 조금씩 나뉘어 있습니다. 그 지구별로 그 지구에 맞는 성지나 성당들의 역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신자들에게 제가 먼저하고 다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들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것들을 말씀 드렸고요. 또 생각이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역사 문화유적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저희는 한사람이라도 귀한 문화적, 정신적, 역사적 가치들을 더 알고 아는 만큼 자연스럽게 배웠으니 행보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감동을 느끼고 가면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교를 받아드린 선교의 기본적인 모티브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서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 원장)

- 예. 감사합니다. 로마 교황청 밑에서 단일 되고 통일된 천주교인줄 알았더니 유럽 천주교와 한국천주교의 느낌과 분위기가 다르고 외국의 천주교 신자 분들이 한국에 와서 독특한 체험을 한다는 것 신부님말씀이 재미있는 말씀이네요. 거기 계신 합덕성당 신자님들 자체가 문화재고 그분들이 스토리텔링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문화재 해설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신선하고 감동적이네요. 다음은 현장에서 행사를 치루고 앞으로 계속 맡아서 해야 할 김정겸 서산시 문화관광과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 김정겸(서산시 문화관광과 과장)

- 서산시 문화관광과과장 김정겸입니다. 주제 발표하신 세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발표하신내용을 여러 가지 행정 하는데 활용이 될 만한 사항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는 교황방문이후 변화된 현장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일적 변화로 볼 때 먼저 해미읍성과 해미성지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각종 방송사나 영화사 이런 곳에서 촬영협의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미읍성을 찾고 있는 관광객 수가 아까 유병덕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증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평일에는 2000명 정도 오고 주말에는 5000명에서 많게는 10000명

까지 오는 날이 있고 어제 그저께 토요일만 해도 70대 이상의 관광버스가 한꺼번에 방문해서 해미읍성 주차장이 마비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그것보다 외형적인 변화는 현장에 오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포장도로나 인도 간판 이게 교황방문 계기로 해미가 아주 작은 시골 도시입니다 방문객 편의시설을 기본적인 쉼터나 주민들 말로는 한 20년 정도 앞당겨졌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도시 인프라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표현 합니다 내면적인 변화는 우선 천주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크게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일전에는 천주교를 하나의 종교로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교황님 방문이후에는 지역의 역사문화 지역개발자원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는 교황방문이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와 긍정적인 생각을 시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황방문에 따른 국제행사를 주민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잘 치러냈다는 자신감과 시민의식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교황방문이전에는 주민들이 노상 적치물을 편적해놓고 환경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상태였는데 교황방문이후에는 노상 적치물을 내놓지 말자는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적치물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황 방문 행사가 잘 마무리된 지금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황방문 후기를 지역발전으로 연계시켜 나가기위한 후속사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분별한 후속사업은 자칫 종교계로의 갈등과 불신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합니다 원칙과 방향성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속사업의 원칙과 방향 중 첫 번째 말씀드리는데 것은 역사적 고증을 통한 보편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주교를 종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역사문화의 한 분야로 접근하고 고증을 통해 보편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회에서 객관성을 인정받으며 타종교의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보편적 가치 중심의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황방문 후속사업은 천주교 적인 종교적 성격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종교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랑, 평화, 평등, 정의 이런 보편적가치가 중심이 되어야하고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참여할 정신적 육체적으로 힐링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개발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적 특색에 맞는 사업들이 개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자치단체가 똑같은 사업을 개발하거나 추진한다면 사람들로 부터 호응을 받기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를 발휘해서 지자체간 서로 연계되거나 상호 보완되는 그러한 후속사업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의성에 대한 사업 추진입니다 시의성을 놓치면 교황방문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잊혀지게 되고 교황의 방문효과도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교황방문의 불씨가 떨어지지 않도록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단기적으로 분류하여 시행하고 오랜 기간이 걸리는 사업들은 장기적 사업으로 분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담 기구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을 전담 할 수 있는 기구와 인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충청남도를 비롯한 해당 자치단체 행정기관과 천주교 대전교구 등 종교단체, 충남발전연구원과 충남역사문화연구원등 연구기관 그리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통합적으로 담당기구를 갖추고 참여기관 단체별로 역할을 배분하여 추진 할 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에서 추진을 앞두고 있거나 구상중인 사업들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10월8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해미읍성축제에서 서산시에서는 사진협회의 주관으로 사진전을 열고 성지순례길 걷기행사를 해서 교황님 방문 효과가 수그러들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시티투어도 교황 방문도시에 맞게 보완하여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교황님이 헬기로 도착하신 폐교된 해미초등학교를 활용해서 교황방문 행사와 관련된 물품들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교황방문 기념관이 건립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투자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해미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일단 전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산군에 국내 사업을 통해서 엇그제 확정이 났습니다. 구 해미초등학교를 활용해서 해미읍성박물관이라는 사업을 했거든요. 국비가 20억 원 정도 책정이 돼서 이곳에 교황과 아시아 주교 60분께서 직접 쓰신 친필집이 또 미사에 사용됐던 각종 물품사진영상 등을 정리를 해서 전시를 하고 앞으로 기념관이 완공이 된다면 전시무품을 그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대전교구와 이미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프란치스코 교황 광장 개설 및 기념관 건립도 위치는 해미성지 앞이며 토지는 대전교구에서 400천 평 정도를 매입하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현재 대략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조만간 충남도와 협의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힐링캠프 및 도보 성지순례길 조성입니다 힐링캠프는 폐교된 해미초등학교를 활용하여 교육시설 공원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 등 박근수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미쉬 숙소형태로 저가숙박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황방문은 물론 사랑, 평화 등 보편적가치의 전파를 통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친사람들에게 치유의 기능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계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대전교구에서 별도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서산시와 함께 공동 협의과정을 거쳐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도보성지 순례길은 한빛고개에서 해미성지까지 약 11기로 구간을 아라매길 구간으로 이미 정비를 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에서 추진 중인 내포지역 순례길과 연계시켜 정비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황 오찬 상품입니다. 서산시 해미성지에서는 교황님이 오찬을 드신 유일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서산시에서는 교황님 오찬을 상표등록과 함께 상품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종교적으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대전교구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현재 200명의 해미읍성 주차장은 600명으로

확장 조성하는 해미읍성은 물론 힐링캠프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미읍성 해자를 복원하여서 물을 담고 옛 모습을 원형을 갖춘 그러한 전국의 성으로 조성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미읍성을 비롯한 내포 문화지역의 성지와 순례길을 함께 묶어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할 것을 적극 구상하였으며 이를 도지사님께 건의드린 바도 있습니다. 내포 문화지역의 천주교는 선교에 의해서 전파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평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전파된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죽음도 불사한 자유와 평등 운동이라는 점에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에 무리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서산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발굴중인 후속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 원장)

- 예, 감사합니다. 서산은 교황님 방문이후로 인지도도 브랜드가치도 높아지고 관광객도 늘어나고 시민의식도 증대되고 여러 사업도 많이 하시네요. 박근수 교수님하고 이원재소장님이 서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코멘트 좀 해주시죠.

■ 박근수(배재대학교 교수)

- 흥미로운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자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 원장)

- 예. 시의성도 중요하고 졸속으로 하면 안 되고 예, 감사합니다. 이용로 솔뫼 성지 주임신부님 말씀 듣겠습니다.

■ 이용호(솔뫼성지 주임신부)

- 예. 세 분 무엇보다도 좋은 취지로 발표준비해주시고 발표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도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접근 해야겠다, 관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황님이 한국관광을 마치시고 바티칸에 돌아가셔서 한국을 방문한 느낌이랄까 보고회라고하기엔 뭐하고 소감을 발표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서양의 종교가 그리스도교였잖아요 유럽의 교회가 한국에서 서양의 종교가 아닌 한국의 문화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오셨다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저희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선교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한국사회를 보고 전하신 이야기인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자신들이 성리학적인 기반 속에서 동양의 종교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중국까지 가서 새로운 그리스도교 문화를 스스로 받아드렸고 그러한 수많은 박해를 겪

어내면서도 그리스도교의 보편적 가치를 박해를 통해서 견뎌냄으로 인해서 지금은 명실공인 한국의 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표현하셨어요. 이건 선교적으로도 미션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세계적인 교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리스교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꼭 전해야 하는 것 그것이 미션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문화를 잘못 알고 이해시키는 전달과정에서 교회와 많은 타격을 입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조금 특별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문화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종교라면 누구든지 가서 그 종교를 선택해서 자기 민족에게 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선교관으로 전환을 가져왔다는 거죠. 더 이상 서양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새롭게 전하십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성지 안에서 늘 하느님을 믿지만 신의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에 의한 평등성 윤리성 이런 것들이 늘 우선시 되어야만 다른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발표하신 것 중에 저도 늘 고민하는 것은 진정성하고 상업성 사이에서 저도 늘 고민합니다. 교황님 방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오고했을 때 사람들은 성지마당에서 뭘 팔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작은 것으로 출발하고 교황님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교황님이 잡수셨던 떡으로 둔갑하기도하고 음식으로 둔갑하기도 하고 이러한 상업성적인 진정성이 흐려지는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하나의 앞으로 흘러갈 하나의 향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놓치기 싫었던 것은 순례길입니다. 저도 순례길에 미쳐서 늘 걸어 다녔고 산티아고 순례길도 몇 해 전에 갔다 오고 내부의 순례길도 걸으면서 이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순례길이 된다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 인생 여정하고 비슷한데 인간의 삶과도 비슷한데 신앙이 들어와서 저는 그것을 탄생로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성장로도 있고 활동을 했던 활동로도 있고 또 박해에 끌려간 끌려가는 아픔로도 있고 죽음을 향한 순교의 길도 있고 순교하신 이후에는 교우들이 시신이 버려지는 것이 어려워서 묘로 이장하는 이장로까지 어떻게 보면 인생전체에 대한 여정이 있기에 하나의 깨달음의 길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늘 매력에 끌리고 걷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2주간 내가 왜 시작했을까 이것만 했습니다. 물리적인 길을 물리적으로만 바라본 거죠 물리적인 길을 걸으면서 물리적으로 내가 아프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변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이 길을 왜 걷지 라는 생각에서 이제는 그다음단계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처음에는 수없이 많이 서로를 경쟁하면서 걷다보면 경쟁의식이 생겨서 추월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 빨리 걸어야 빨리 하느님 나라가지 늦게 걸으나 조금 천천히 걸으나 빨리 걸으나 목적지는 똑같은데 뭐 그렇게 서두를까 또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이후로 저는 웬만하면 빨리 안 걷습니다. 빨리 걸으면 인생에서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구나를 또 체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아가서는 이제 영적인 면모의 축

각이 다시 되살아났다는 어떤 하느님께 이르기 위해서는 먹을 것도 적게 가지고 다녀야되는구나 많이 가지고 다니면 짊어지다 무거워서 죽으니까 하루 먹을 것만 가지고 다니는 거야 만일 열흘 먹을 것을 짊어지고 가면 힘들어서 못 걷습니다. 다음날 하루 먹을 것만 짊어지고 가야 걸을 수가 있어요. 배낭의 무게가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많구나 버림에 대해서 하나에서부터 영적인 것에 대한 변화 어떤 그런 것이 아까 이원재소장님이 말씀하신 교황님 방한 이후에 이 사회가 갖춰야 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문화콘텐츠가 아닌가, 변화시켜서는 안 되는 가치가 이게 아닌가, 그리고 조금 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보편적인 가치가 꼭 천주교의 길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함께 걷는 길입니다. 그래왔던 길을 이야기할 때 폭넓은 길의 개념을 제시하고 인문학적 정의와 함께 소개되고 그래서 그것은 천주화학생의 길 그 이후에는 동학 교우들의 길이였고 그 이전에는 무당들의 길이였을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의 길이였습니다. 이런 길에 통합적인 철학이 함께 전해질 때 이 순례길이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인문학적인 정리와 함께 순례길의 정당성이 모든 이가 순례자라고 표현한 것이라면 인생자체가 순례니까 그런 통합적인 인문학적인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제시해드리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의 천주교 역사에 대한 인문학적 경계를 해주시기를 역사를 좀 정리해 주실 수 없을까 저희가 정리하면 늘 종교인들이 정리하면 객관성들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팔도 안으로 굽는다고 오히려 더 객관성 있고 보편타당하게 한다면 이렇게 충발연이나 역사문화의 연구진들 객관적인 교수님들을 통해서 어떤 문화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이나 콘텐츠들은 저희들도 전해드리도록 하는 걸로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진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 교황님 방한 이후에 놓쳐선 안 되는 부분 그것은 우리들이 간직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 원장)

- 이용호 신부님이 교황님의 방문 뒷소감도 소개해주셨고 이런 건 저도 처음 듣는 애인데 이런 얘기는 널리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진정성과 상업성 사이에서 좀 더 보편화하는 인문학적인 자리매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반나절 정도 솔뫼성지 합덕성당을 지나서 신리까지 걸어봤는데 반나절로 해가지고는 깨달음이 안 오나 보네요 우리 충청남도를 다 걸으려면 20일정도 걸어야 되나요?

■ 이용호(솔뫼성지 주임신부)

- 그 정도 되죠. 그리고 충청남도 곳곳이 산과바다 들판 이런 모든 자연환경이 주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원 활용이 돈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같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 원장)

- 우리 연구원에 박철희 박사님이 내포지역에 연구를 하면서 어쨌든 신부님들 하고 종교학자들하고 인문학자들하고 다양한사람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이원균 관광사업과 팀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 이원균(충청남도 관광산업과 관광기획팀장)

- 충청남도관광산업과 이원균입니다. 신부님이 순례길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있는게 내포 천주교 순례길 연구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포천주교순례길이 88기로 정도가 되는데요. 보통저희는 내포순례길을 공세리성당부터 해미성지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신부님들도 참여하셨었고 충남 역사문화원 원장님과 연구진들과 협의하여 결정된 내용입니다 일단은 공세리부터 솔피성지를 1코스라고 이름을 붙여 봤구요. 여사울에서 신리까지를 2코스 홍주성지에서 홍주성당은 3코스 일단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했던 것은 내포 순례길에 대해서 안내표지판 방향표지판 쉼터 등을 조성을 했구요. 제가 말씀드린 데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순례길은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과들과 바다를 끼고 있어서 아주 예쁜 순례길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콘텐츠를 입혀서 사람들이 신자가됐던 비신자가 됐던 많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상업성과 진정성에서 갈등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도 이런데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을 위한 길을 만들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비신자들과 같이 어울려서 함께 걷는 길을 만들어야 하는 건지 콘텐츠를 종교적인 색채가 나지 않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인데 소개해드리는 것이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사울, 솔피, 합덕, 신리 이런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천주교 문화벨트를 조성을 해보려합니다 에코뮤지엄이라고 거리 박물관을 조성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망월에 자원 폐가가 있어요. 벽면을 이용한 월아트 같은 것을 조성해보자하고있구요. 폐 농기구를 활용한 공공예술프로젝트 못 쓰는 농기구 같은 것을 이용하여 추진하고 있고요. 각성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각 성지와 협의를 해서 주차장 한 가운데다가, 서울에 가면 남산공원 열쇠처럼 십자가에 나무를 그런 것을 만들어보려 하고 있고요. 십자가의 길 조성도 있는데 저희가 약 88기로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에 십사처를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며 신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훼손할 우려도 있어서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을 하지 말고 조그마한 구간 구간에 성당과 성당 예를 들면 합덕하고 신리성당에 조그만 구간에다가 석조물 같은 것은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 나무로 가볍게 십사처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례길을 걷다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편의시설이 필요한데요. 그중 화장실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화장실을 그 구간에 설치할 수 없으니 마을 회관이나 큰 가게 같은 데가 있으면 그곳을 활용하려고합니다 일정 기간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구 있고요. 다음에는 안내도가 내포천주순례길이 똑같진 않는데 내포문화 숲길에서 운영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안내판에 깨달음의길, 내포천주교의 순례길 이렇게 묶여있어요 내포 천주교순례길이라는 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00라고 있는데 00순례길은 그것이 되어있어요 저희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가장 그것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관리 주체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을 전체가 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포문화숲길은 내포사단법인 내포문화숲길이 있어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길이 조정이 되고 하면 그쪽에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포 천주교 순례길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천주교신자들을 1단계로 해서 홍보를 하고 2단계를 지역주민하고 신자들하고 3단계는 일반인에게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박근수 교수님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성지를 상징화 할 수 있는 패스पोर्ट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신리성당이면 신리패스포트 그림을 넣어서 쪽 완주를 한다면 완주 증명서를 제작해서 산티아고 순례길 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생각한 게 주민 참여방안이 가장 중요한데요 같이 천주교 순례길 순례지기를 양성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레저 활동이나 지역주민 중심으로 순례지기를 모집하면 누구든지 순례길에 와서 참여도하고 홍보도하고 설명도 해줄 수 있는 그런 활동가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쪽 음악회라든지 합덕뜰 같은 데에서는 메뚜기 축제 같은 것도 어떨까 그리고 그 길이 약간 지루한데도 있으니까 마차를 운영하던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남는 것이 이용로 신부님이 순례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맞춰서 순례길을 조금 더 저희가 얘기한 것은 상부 쪽이요 하부 쪽은 아직 안했는데 하부 쪽도 얼마 전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서짓골하고 완장쪽이 지금 순례가 하고 있고요. 삽티하고 삽교하고도 하고 있고 다락골 주민들하고 전체를 연결을 시켜서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최종이 되진 않았지만 전체를 걸을 수 있는 내포 천주교 순례길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 원장)

- 이원균 팀장님이 굉장히 재미있고 다양한 것들을 말씀해주셨는데 이거는 바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진짜.

■ 이원균(충청남도 관광산업과 관광기획팀장)

- 이것은 안인데요. 최영화 연구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게 밖으로 나가면 곤란하다 그래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 원장)

- 네 구상 중에 안이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박근수 교수님과 이원재 소장님과 코멘트좀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언론인이 보시는 시각은 다를 거 같기도 하구요 재미있을 거 같은데요, 이종원 충청투데이 내포본부 부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원(충청투데이 충남본부 국장)

- 저희가 내포 본부는 아니고요, 충남 본부입니다. 도청이 내포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도청경찰청교육청 이렇게 가다보니까 저희가 본사가 대전이다 보니까 대전에 전부다 밀집되어 있어요. 주요기자들만 시군에 지역에 따라서 2명씩 가고 한 명씩 가고 그랬는데 작년에 도청이 이사를 하면서 저희가 한 팀이 사무실도 옮기고 그래서 충남본부로 되었습니다. 전국에 제가 보니까 천주교 성지가 많더라고요 많은데 교황님께서 충남 방문하신 건 제가보기엔 참 충남이 축복을 받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토론회가 있으면서 제가 한번 타 지역에 관광 상품은 지금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나 또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가 제가 알아봤더니 이번에 교황님 오시고 나니까 각 광역단체 같은 경우 지자체가 00같은 것을 만들어보자 천주교 성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호감도도 많고 어떤 덴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반응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 코레일하고 연계를 해서 5월 달에 준공이 됐다고 했는데 인천제물진두라고 하는 기념경당하고 갑동성당을 코스로 하는 순례코스를 상품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단체관광객을 모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북도 같은 경우로 칠곡리 한티성지하고 김수환 추기경 생가 가실성당 논경 쪽에는 마음성지 진암리성지 이쪽에 경북 같은 경우는 인물하고 역사를 재조명하는 관광 루트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고 전북 같은 경우 특히 전주가 열성인데요. 지난번 교황님 오실 때도 우리 동네도 와라 오셨으면 좋겠다 해서 전주시장이 공식적으로 전주도 방문지역에 포함시켜달라고 이쪽 전주 같은 경우도보면 전동성당하고 나바위 치명자산 이쪽에 상당히 관광 상품 자원이 괜찮다고 해서 연계된 걸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충북 같은 경우도 한국관광공사 충북협력지사라고 하는데 그 기간과 같이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음성 꽃동네 감곡성당 이쪽을 성지순례 코스로 개발을 했어요. 이쪽은 지난 7월 달에 필리핀 여행사들을 대표를 모집을 해서 초청을 해서 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날 타겟을 어떻게 잡았나했더니 필리핀을 잡았더라구요. 왜 그랬나 했더니 필리핀 90%가 천주교 신자라고 합니

다 특히 최근에 한류바람이 불고 그러다보니 한국을 한번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데요 한국에오면서 종교적인 친근감도 있고 한 천주교 성지들을 둘러보면서 한류도 같이 엮어서하면 좋은 기획상품이 되겠다 하여 필리핀을 90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천주교 신자들이 상당히 동경하는 한국에 천주교 성지까지 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충남 같은 경우는 교황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타 지자체 보다는 상당히 우위에 있는 것 같은데 경쟁력부분에서는, 박근수교수님이 말씀하신 순수성 진정성 이런 것도 지키면서 관광상품에대한 아무래도 상업성이 대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일정부분에서는 상업적인 부분이 있어야 상품개발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상업성에 많이 치우쳤다고 할까 그런 사례를 보면 중국에 소림사가 있습니다. 소림사가 80년 전에 거의 문을 닫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사찰과 소림무술이라는 것을 결합시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림무술이라는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그 뮤지컬이 전 세계 25개국인가 공연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2년간 목표를 800만 달러를 순수익으로 잡더라고요 80억에서 90억 가량 1년에 4~50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얘기고 거기에 식품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식품회사가 음료도 개발하고 그러는데 한 30여종의 음식을 개발하였다고 하는데 그 음식이 중에서 야채 떡이 있는데 채식주의자들이 상당히 인기래요 특히 서양 쪽에서 다이어트하고 동양음식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사찰음식이 참 좋다 그 30여종 개발한 음료수부터 떡까지 상당히 잘 팔리고 있고 그다음 소림 신발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무술 교본을 팝니다. 그 무술 교본을 주문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 살 수가 있는데 한권에 100만원을 호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스님이 미국 mba출신이신데 이양반이 한 말이 뭐냐면 중국에서도 너무 상업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는 비난이 있습니다. 사찰이 너무 타락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 양반이 mba출신이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하버드대에도 초청을 받아서 특강을 나가고 그다음 애플 구글 이런 데에도 직접 방문을 해서 소림무술이라는 것을 스마트용 게임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게 한번 히트를 치면 전 세계적인 큰 상품이 될 거다. 이양반의 지론이 뭐냐면 좋은 상품과 서비스는 종교를 알리는 제일 좋은 홍보가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종교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다, 그런 경영 철학이에요 그런 상황을 보면 일정부분은 상업적인 부분도 가미가 되는것도 제가보기에 소림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홍보가 되다 보니까 관광객이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입장료만 일년에 70~80억 정도 된대요. 소림사에 전에는 스님들이 몇 분 계시지도 않고 문 닫으려고 하고 끼니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소림사 주변에 농축산물 그런 것들을 관광객들이 사고 그러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허난선 사찰 있는 지역이 중국에서도 제일 가난한 동네였는데 지금은 손꼽히는 부자동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민이

반기고 있고 하지만 이런 사례를 보면서도 저희가 일정부분 참고를 하면서 고민은 해야 될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들구요. 개발방향이나 상품개발방향에 대해서는 박근수 교수님이나 이원재 소장님께서 아주 밀도 있고 좋은 안을 주셨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고 일반인이 많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 성지순례 플러스 힐링, 요즘 힐링 그러잖아요. 그것이 일정부분 상당히 어떤 포지션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그다음이 관광이 되고 이렇게 같이 가야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이 될 때 너무 종교적인 색깔만 내게 되면 왜 특정종교만 예산을 그렇게 많냐, 이런 발목 잡기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갈등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힐링관광 그러면서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성 종류를 많이 가미시키면 어떨까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 교황방문하면서 느꼈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정부의 대응이나 반응을 보면서 최근에 당진 솔피성지가 국가문화재00지정이 됐죠. 그걸 보면서 오시기전에 일정이 언제 오신다는 게 다 잡혀 있었는데 교황님 같은 경우는 소탈하시고 형식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인품이 그러신 분이라는 데 어떤 큰 선물 말고 교황님이 오셨던 방한기간 중에 단진을 방문하는 날이 됐든 방한기간 중에 솔피성지 국가문화재 사적지정 발표를 그 기간 중에 했더라면 얼마나 큰 선물일까 교황님 입장에서 내가 온 날 마스크를 통해서 대한민국정부가 해준다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 보자기선물을 드리긴 했지만 제가 들어보니 백제금동왕관인가를 하려하다가 그것이 고가이고 화려하다보니 안 받으실 것 같아서 보자기를 드렸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발표에 감동이 타이밍이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어차피 발표할건데 문화재청에서 방한기간에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구쪽에서도 했고 도에서도 했지만 정부에서 국가적인 손님이 오셨을 때 대접하는 대응에 조금 고민이 덜하지 않았나 고민을 했더라면 어렵지 않은 부분이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 원장)

-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구해야 될 것을 국장님께서 다른 시도에 중국의 소림사 사례까지 잘 성명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구원에 박철희 박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 박철희(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예, 오늘 발표하고 토론 자리에 오히려 제가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발표하고 토론 내용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황님이 왜 솔피성지와 이쪽에 오셨을까 사실은 순교하신 김대건신부님과 많은 선도들이 없었으면 사실은 여기 안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김대건 신부하고 선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선교를 했을까 제가 내포 정체성을 찾아보니까요, 지

형적으로 여기는 서해안과 접하면서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외부지역에 접하면서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포용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위기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연계하고 자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이쪽에 계신 분들이 저는 이쪽에 어떠한 가치가 다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천주교 신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위험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에 대한 가치 비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개방적인 다양한 포용적인 사고 서로 연대하려는 마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세계명품도시를 만드는 여러 조건 속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다 측면의 가치를 어떻게 이 공간에 녹이고 전달을 해줄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얘기중에서 이것을 네트워크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걷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떠한 도시라던지 지역을 가보면 일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굉장히 걷기에 편리한 구조로 되어있어요 기본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미적으로 아름다운 걸 떠나서 우선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깨끗해요 그런데 그것을 첫 번째 제가 응용을 했던 사례가 국내에서는 제주도 올레길이었던 것 같아요 올레길이 기본적으로 성공했던 것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보권이 훼손된 상태에서 그것을 적절한 시기에 터트렸던 자연경관하고 엮어서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적인 도보권에 대한 것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고 싶어요. 그다음단계로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니까 그래서 충청남도가 이 길을 통해서 생각하는 사회가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곳이 충청남도의 내포순례길로 하면 어떨까 그러한 것을 발전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 해보고 싶습니다.

■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 원장)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태 박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 김경태(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저는 관광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저도 비종교인인 입장에서 천주교인이 아니니까 비종교인인데 관광 쪽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가 종교관광에 대해서 고민한 건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연구원과 종교 관광이라 해서 충남의 종교관광자원이 엄청 많은 지역인 건 여러분 모두가 알고계시고 왜냐면 충남지역에선 모든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 창고역할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불교부터 시작해서 천주교 기독교 역사적으로 모든 문화들이 먼저 들어온 곳이 이쪽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최초라는 말이 들어가는 부분은 대부분 충남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종교적인 갈등이 발

생활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니까 쉽게 접근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교황방문으로 사실 천주교입장에서는 천주교를 더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관광객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뭔가 어차피 종교인들에겐 비전이라는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있던 부분이었던거죠. 충남 천주교는 천주교인들이 무조건 찾아야 되는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많았습니다. 비종교인들이 그렇게 찾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당겨서 어떻게 우리 우수한 자원을 보여주지가 항상 문제였던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종원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힐링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여기에 접목시켜서 비종교인들에게 줄 것이냐 그리고 종교라는 부분이 이기대문에 그냥 쥐셔도 안 됩니다 감동이 있게 쥐야하거든요 비종교인 입장에서 성지라고 하니까 어떤 고귀한 감동이 있겠지 하고 오는데 그걸 못준다고 하면 실망이 더하죠. 기대가 크면 실망이 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지금 순례길도 얘기했지만 그런 순례길을 계획했을 때 우리가 편의시설만 한다면 우리가 어떤 걸 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고민을 계속 하거든요 산티아고 얘기하시면서 가면서 스스로 느낄 때 감동이 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걸 쥐야하는데 그걸 줄 수 있는 게 충남천주교에서 줄 수 있는 게 뭘까를 공유하다보면 사실 저 같은 경우 내포문화와 천주교 문화를 접목시키는 데에서 감격을 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포문화라는 것 속에 천주교 문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서민들이 생활하면서 종교가 있었고 서민들이 생활하면서 종교를 찾아서 삶을 살면서 성지가 된거지 여기를 성지로 만들자 해서 만든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진 합덕지구도 그렇고 합석시장에 얹힌 천주교 신자들에대한 자원 해미 천주교 신자들에대한 자원 이런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천주교 자원과 생활모습을 보여주는 데에서 오는 감동 그중에서 느꼈던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이런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스토리텔링으로 엮었을 때 감동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던 게요. 저는 천주교 교황을 모시면 외부사람들이 올 텐데 이걸 어떻게 그쪽에 맞춰서 주지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그 사람들에게겐 새롭겠구나,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품이 되기도 하겠구나, 아까 필리핀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 중국도 종교관광에서 종교인들이 좀 늘어난다는 수치가 있거든요 중국인도 어찌면 우리의 고객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 원장)

- 네, 몇 가지 절차만 거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박사님.

■ 최영화(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제가 오늘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은 주체 문제였는데요. 이게 도나 시군에서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한다하더라도 그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

려면 거기에 참여하는 주체들 간에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지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사자원 활용방안이 생태적이고 문화적이고 윤리적으로 갈 수 있으려면 지역공동체와 함께 계속 지속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다행히도 충남도도 그렇고 서산시나 당진시나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가는 방향으로 목표설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고 잘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 원장)

◦ 네, 감사합니다. 발표하신 순서대로 짧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원재(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다 동의하는 내용들인데 혹시나 하나는 저는 보편성을 확보하는 게 무색무치가 되버릴 수도 있겠다. 저는 한국천주교의 정체성을 정확히 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본 핵심은 그거예요 그런데 종교적 이런 예를 들면 그 행정적 우려를 모르는 게 아니지만 원래 문화적인 콘텐츠가 행정으로 가면 다 재미가 없어지고 실패 하나면 민원이나 그런 것들인데 저는 이런 부분이 한국천주교가 교황이 왔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황이 온 게 전환점이나 계기점이 되는 거지 그 전환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천주교라는 정신, 힘, 가치가 이 가치가 종교적이지만 종교를 뛰어넘는다고 오히려 더 한국 천주교를 주목해야하고 다만 이용호신부님이 정확하게 말씀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결합하게 하는 게 그게 보편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보편성을 떨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더 많은 인문학자 더 많은 다른 종교자들이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논의를 해서 이것이 보편성을 확보하고 객관성을 확보한다 생각하지 처음부터 쳐내면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고 아무도 실제 주체들도 형성이 안 될 것이라고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잘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멈칫거리지 않고 더 깊게 들어가야 된다는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공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문가나 행정이든 누군가가 공급하면 실패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 한국천주교로부터 에너지가 나오게 해줘야 된다. 나오게 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사람을 만들고 그게 당연히 종교에 보편적인 힘이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더 많은 주민들과 사람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을 이벤트를 만들어서 공급하면 사실 순례길을 공급하는 걸 누가 순례길을 걷겠습니까. 군인들 행군이나 하는 거지 이걸 스스로 자발적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를 힘이 올라와왔을 때 물질성을 뛰어넘을 정도의 그게 진정성이라고 계속 말씀 하신 거거든요 공급하지 않고 저는 길도 길 위에 설게는 실패한다고 생각해요 길도 산티아고랑 다르잖아요. 그럼 길도 만들어가는 일부는 이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길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더 많은 심부님들과 종교인들과 혹은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관광객도 마찬가지로 관광객도 처음에 오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리어답터들이 있고 대중화돼서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중화되고 오는 사람들에 맞춰서 설계하면 실패합니다. 실제 진정성을 가진 콘텐츠가 있어야 그게 대중적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 이용호(솔뫼성지 주임신부)

- 여기는 충청도는 걷는 사람이 항상 순례길에 걷는 도보 순례길에 항상 중심에 있었어요. 지금도 항상 한여름에는 청년들이 학생들이 항상 걷고 지금은 교황님 왔다 가신 뒤로는 평일에도 걷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정표 이런 것들만 표시해놔도 상관없거든요 저희도 서검수이사장님이 제주도 올레길을 산티아르 갔다 와서 자기 고향에 아름다운 길을 내는데 아까 박철휘 연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길 그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공감하는 게 아름다움을 계속 보면 질리거든요 이런 의미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들 오고 있거든요 오고 있는데 시군에서 하는 일들을 통합하는 일을 도에서 해주십사합니다.

■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 원장)

- 감사합니다. 유병덕과장님.

■ 유병덕(충청남도 문화예술과 과장)

-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기회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주신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고 저희가 사실 부탁을 드리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해주신게 너무 감사한데 정말로 저희가 소화할 부분이 많이 있고 이 부분을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나가려고 하면 사실 지역주민하고 신앙공동체하고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네트워크를 만들고 감동을 주시는 스토리텔링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제일 중요한건 지역주민과 성지와 성당이 함께 가야한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순수성이나 진정성이나 상업성이나 문화재, 인문학적인 역사 정리를 제가 한번 해 볼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해볼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지 이것이 지속가능하게 나갈 것인지에 포인트를 둘 것입니다 김정겸 문화관광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내포 천주교 성지를 유네스코 등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제 문화제에 그것이 2015년 정도에 확정이 되고 나면은 바로 이것을 착수할 것입니다 두 개를 다 내놓으면 두개다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저희가 진행할 것입니다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 원장)

- 네 , 박근수 교수님

■ 박근수(배재대학교 교수)

- 네 충bal연에서 종교관광부분이 기존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불교 같은 경우 템플스테이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불교 조계종하고 문체부하고 얘기를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지역에서 종교관광에 대한 준비는 아마 충bal연에서 많은 준비를 하셔서 그동안에 세미나도 하고 지역적으로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은 처음인거 같아요 좋은 재미있는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구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아마 정부에서도 교황 방한 자체가 세계적인 어떤 일이고 이벤트다보니 관심을 많이 갖고 이런 부분에서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여기 계신 분들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겠는데 먼저 시작 자체는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천주교를 충청도에 종교관광 테마를 해서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나가시고 협력을 하신다고하면 제가보기에는 상당히 잠재성이 있고 시기도 적절하고 그렇지 않은가 싶고요 충bal연도 중간에서 계속 네트워킹을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 원장)

-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까 김정점 서산시 과장님이 명함을 주셨을 때 해미읍성이 그려진 명함에 그림을 주셨는데 이게 장소가 담는 힘이랄까 아우라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특정 장소에 와서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을 종교적 체험을 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장소가 가지고 있는 아우라가 크게 두 개가 있겠죠. 하나는 경관 눈으로 보는 물리적 형상 시작에서 느낌을 받는 거죠. 아니면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불상을 만들어서 크기에서부터 압도적으로 질리게 만드는 거죠. 백 미터짜리 불상이나 탑을 해서 아니면 아름다운 미를 갖춘 다보탑 같은걸 만들어서 조형이나 상징 아니면 백두산 한라산 금강산 산 같은 경관, 눈으로는 경관을 통해서 저희에게 장소적 아우라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속에 있는 스토리적 이야기나 어떤 의미를 통해서 장소가 주는 그런게 있고 저는 한 가지만 보태면 사람이 주는 힘 같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 예를 들면 아미쉬 공동체 같은데 가면 사람들 자체가 큰 경관도 볼게 없고 헛간 같은 데에서 사람들의 삶 자체가 그런 것을 주거든요 그런데를 보면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 어떤 사람은 A라는 감정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B라는 감정을 느끼고 이걸 보는 시각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황님 오신 길을 걸으면서 제가 그때 같이 걸었던 분들이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어떤 분들은 충청도인의 충절과 의리 이런 것들을 느꼈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국가폭력에 대한 희생자들의 이런 걸 느꼈다는 분도 있고 이게 같은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경험과 결합해서 다 체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들이 모여서 얘기 한 게 평

장히 유익했던 거 같고 공감대가 있던 것 같고 같이 나가는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종교를 넘어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자 이런 데에서 큰 방향이 맞았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성을 추구하다 무색무취가 되면 안 된다는 특히 이원재 소장님의 생각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편성을 추구하다 특색이 없어서 무색무취가 돼버리면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심이 없어지거든요 중심이 없어지면 그걸 몸 받쳐서 헌신할 주체가 안생기고 주체가 안생기면 결국 관이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되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모여서 했던 얘기들 중에 중요한건 우리가 천주교라는 중심을 잘 세워야 된다 천주교라는 중심이 깨지면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천주교라는 중심을 잘 세우고 주체도 잘 출발하되 조금 더 계획 확장해서 내포문화라는 역사성 보편적 가치들 비종교인도 함께할 수 있는 콘텐츠 종교를 넘어서 문화콘텐츠 이것까지도 의미부여가 돼서 천주교가 중심을 잡돼 누구나 동참하고 뛰어도 어색하지 않고 종교가 아니더라도 힐링이나 체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가고 합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